‘전남행복지역화폐’ 1조2천650억으로 확대 발행

道,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국비 150억 추가 확보
가맹점 6만3천개소…도민·소상공인 모두 혜택

전남도가 올해 ‘전남행복지역화폐’를 1조2천650억원 규모로 확대 발행한다.

전남도는 31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가정 경제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을 주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전남행복지역화폐’를 1조2천650억원 규모로 확대 발행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당초 올해 국비 422억원, 도비 65억원의 예산을 시·군에 지원해 일반발행 6천500억원, 정책발행 3천500억원 등 총 1조원을 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비 150억원을 추가 확보해 2천650억원의 지역화폐를 더 발행키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지역화폐를 신속 발행하고 10% 할인판매를 지속했다. 그 결과, 7월 말 현재 올 들어 발행한 7천918억원의 지역화폐 중 7천720억원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민선 7기 전남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전남행복지역화폐는 동네 상점, 전통시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크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전남에서 발행한 1조1천531억원 규모 상품권의 환전율은 95.6%에 달했으며 상품권이 지역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 할인판매로 가정 경제에 보탬을 주고 있어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지역화폐 가맹점을 음식점 위주에서 이미용업, 학원, 약국, 병원, 서점 등으로 다양화하고 가맹점도 6만3천개소까지 확대해 주변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발행 유형도 소비 형태에 맞춰 사용하도록 지류형 상품권 외 카드·모바일형을 추가했다. 현재 22개 시·군 중 21개 시·군이 지류형과 카드·모바일형 상품권을 함께 발행 중이며 9월부터 모든 시·군으로 확대된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행복지역화폐 확대 발행이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불씨가 되길 바란다”며 “가정경제와 지역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전남행복지역화폐를 도민 모두가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정 기자

31일 오전 목포시 죽교동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린 ‘2021 김대중 평화회의 제2차 조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오는 10월 27-28일 목포에서 개최되는 김대중 평화회의를 앞두고 구체적인 행사 실행계획 논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렸다. 〈전남도 제공〉

‘김대중평화회의’ 세계적 평화·인권 축제로

道, 2차 조직위 MZ세대·노년층 함께하는 행사 심의

전남도가 오는 10월 27-28일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개최하는 ‘2021 김대중 평화회의’를 국내외 석학과 평화 지도자가 참여하는 세계적인 평화·인권축제로 준비한다.

전남도는 2021 김대중평화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제2차 ‘조직위원회’를 31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 조직위원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남궁진 전 국회의원, 박명림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2021 김대중평화회의’ 사전 홍보 계획, 전야제, 국내외 연사 섭외 현황, 각 세션과 라운드테이블 운영 계획을 심의했다.

사전 홍보 프로그램인 대국민 평화미소 캠페인은 지난달 17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진행 중이다. 전야제로 열리는 10월 26일 평화의 미소 콘서트에는 조선팝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이날치밴드가 참가해 평화 대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전망이다.

‘코로나19를 넘어 세계평화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10월 27-28일 열리는 학술회의에선 사나나 구스망 전 동티모르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한다.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석좌교수,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장녀인 제나니 노시츠웨 들라미니 주한 남아공 대사 등 국내외 석학과 평화지도자 40여명이 참여한다.

전남도는 ‘2021 김대중 평화회의’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 화해와 용서, 인권,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MZ세대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평화축제가 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평화회의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을 세계 평화의 주체로 알릴 계획”이라며 “앞으로 평화와 인권에 대해 다양한 실천적 과제를 논의하는 세계적 회의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시,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광주시는 1일부터 17일까지 건설 공사현장에서 근로자·하도급자 등 임금·대금 체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 점검 대상은 시가 발주한 건설업체로, 시와 자치구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한 뒤 중·대형 건설현장 1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점검 내용은 건설 공사 공정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이나 임금이 지급됐는지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작성 및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적정성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체불 임금 예방 효과를 높이고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합동점검반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현장 지도·시정 조치하겠지만 위법·부당행위는 영업정지·과태료·고발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시는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과 장비 임대료 등 체불예방 해소를 위해 시, 자치구, 공사·공단 등 7곳에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중이다.

김경호 시 건설행정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건설경기 침체 등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역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겠다”며 “공사대금 및 임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광주시·자치구 발주 소규모 건설공사 공사비 현실화 위한 설계기준 마련

시범 적용 거쳐 내년 시행…5천만원 미만 대상

광주시와 자치구가 발주한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공 건설 공사의 공사비 현실화 등을 위한 설계 기준이 마련돼 시행된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이 1일부터 시범 적용된 뒤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번 설계 기준은 시와 자치구가 발주하는 총 공사비 5천만원 미만의 골목길 하수도 공사와 상수도 급배수공사, 소규모 포장 공사 등에 적용한다.

주요 내용은 ▲표준 기준 보다 수량이 적고 시공 구간 이동이 많은 현장에 대한 할증 ▲작업 장소가 협소한 현장 할증 ▲현장 내 자재, 레미콘, 폐기물 소운반비 적용 ▲공사 현장 뒷정리, 교통 신호수 반영 등이다.

시는 올해 안에 ‘건설 공사 설계 지침’과 ‘건설 공사 업무 매뉴얼’을 개정한 뒤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시설물 건설에 대한 계획부터 유지관리까지 모든 공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경호 시 건설행정과장은 “이번 설계기준 마련은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권익보호,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전남도의회, 제356회 임시회 오늘 개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등 안건 48건 처리

전남도의회가 9월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제35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정·교육행정 질문과 함께 도민의 생활 안정 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조례안 등 48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먼저 도정·교육행정 질문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 동안 이어지며, 24명의 도의원이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도정·교육행정 질문은 KBS, KBC, MBC 등 공중파 방송을 통해 도내에 생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이며, LG헬로비전과 광주CMB는 녹화방송을 중계할 예정이다. 또한 전남도의회 누리집을 통해 인터넷(모바일 포함)으로도 중계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옥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을 비롯해, 나광국 의원 ‘전남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 조옥현 의원 ‘전남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정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또한 김희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 총 48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356회 임시회는 오는 10일 제5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들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 /임후성 기자